

# “간호교육에 있어서의 학습자의 자가지도와 성인교육학적 접근”

역자 전 산 초

<본회회장, 연세간호대학장, 이학박사>

본문: Pearl Resendahl "Self Direction for Learners an Androgogical approach to Nursing Education."

*Nursing Forum* Vol. 13, No.2, 1974.

## \* 역자의 말

이 Resendahl의 문헌을 읽고 나는 두 가지 면에서 모든 간호학도에게 이 글을 읽기를 강권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첫째는 ;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간호사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둘째는 ; 현시대와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강사업을 독자적이고 지도적 입장에서 이룩하기 위한 전략에 기본적인 원리로서 교수나 학생, 또한 임상간호학자(임상간호원)가 자기가 하는 일을 원숙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깊이 동참할 수 있고 귀히 참고할 만한 문헌이라고 생각하여 여기 옮겨본다.

1976년 11월 하순

어느 눈 내리는 조용한 주일 아침 탈고하다.

## ◆ 序

전문직 실습(Professional practice)에는 ① 자가 지시(Self-direction)를 위한 능력과 ② 원리를 실제에 응용할 때 가감할 수 있는 능력과 ③ 새로운 법칙을 개발해 내는데 따라 일어나는 지식을 변화시키고 재확인하는 능력과 이런 ④ 새로운 습득을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데 사용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전문직의 중요한 성격 중의 하나는 학회나 전문직 중앙단체가 소속된 회원들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사회에 근본적인 공헌을 해 나가는데 힘이 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직이 성숙된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간호원이 일생동안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폭넓은 토대를 교육프로그램에 반영시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변화를 이루면 다른 직종 —특히 의학(medicine)—에 대해서 높은 의존도를 보이던 과거의 형태에서 벗어나 우리의 직책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관계 개념을 규정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간호직이란 독특한 성격을 띤 독립된 전문직이 될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느냐 아니냐는 오직 우리에게 책임이 달려 있는 것이다.

## ◆ 本 論

우리는 간호교육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가 자문할 필요가 있다.

1. 학생들이 그들의 목표와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2. 자율적인 전문직 종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3. 자주적인 학습(self-directed learning) :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배울 수 있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4. 일생동안 배우며 향상하는 태도를 개발하기 위해

Manksch(1972)는 “교육적인 배경에서 볼 때 현대 사회화의 과정은 간호원으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자주적(self-directed) 전문직 종사자가 되도록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또 Dires(1972)는 “우리의 교육적인 제도(구조)는 간호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을 훈련시켜 주었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들의 요구가 만족되지 못했으며 그들의 교육경험들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을 한다.

그토록 많은 간호교육의 배경(setting)이 서로 상충되어 방해가 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목표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고 반문하고 있다. (Litwack 1971)

여기에 암시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학습(learning)이란 내부적인 진행과정이며 그러므로 해서 학습자를 좀 더 정도 깊은 자율적(self-directed) 욕구에 빠지게 해주는 교육방법이 타든가 교육전략을 통해서만 지대한(great) 교육경험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숙한 학습자는 ① 자기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하고 ② 자기의 배움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③ 자기의 배움을 수행해 나가고 계획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같이 나누도록 하고 ④ 목표를 향한 진행과정을 수시로 평가하게 하며 그렇게 하고나서 ⑤ 그들의 요구를 재평가하게 하고 그렇게 하므로써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욕구를 계속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자극과 격려를 받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인을 교육시키는 교육자의 역할이란 조력자, 촉진자, 상담자, 인도자, 재료 제공자가 되어야지 지식의 전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육자의 주된 임무란 학생들로 하여금 적절한 문제점 발견과 가장 최선의 문제 해결을 찾아내도록 암시해 주며 학습자 개인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같이 배우며 서로가 요구되는 입장에서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Knowles(1968)는 성인교육에 새로히 대두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그의 논문에 andragogy라는 새로운 낱말을 발표하였다. 만일 pedagogy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아 교육학 내지는 교육방법 또는 교육과학을 표시하는 말이라면 andragogy란 성인을 교육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 견해이다.

(희랍어로 paed=어린이, andr=성인을 뜻함. edagogy란 이런 희랍어를 바탕으로 된 말임)

andragogy의 일반적인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최상의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이다.

그는 그의 연구에서 자기가 제정한 낱말 andragogy가 전제하고 있는 4개의 성인의 특성을 발췌하고 이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는 간호교육에 andragogy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이 4개 항목에 성인이 특성을 발췌한 것을 차례로 풀어보면 :

### 발췌된 4개의 성인의 특성중

#### 전 제(Premise) 1

성인은 자기 자신을 의존적이고 성숙되지 못한 피교육자와 같지 않고 자주적이며 책임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존경받지 못할 사람처럼 취급받는 상황에 대하여 저항을 느낀다.

첫번째 응용 : 교육자의 행위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는 학습분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Rogers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우고 있다. 즉 “상담교수(counselor)와 학생(client)의 관계에 있어서나 교수와 학습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현실적이고 봉사적이고 순수한 관계라는 것을 학생이나 학습자가 느끼고 알아차리게 된다면 이 관계는 인간의 가능성을 보다 진작시키고 촉진시키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1958. p. 10)

이것은 counselor나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보다 바람직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개인적으로 제시하는 법칙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심리요법사(psychotherapist), 교사, 원목(신앙지도자) 또는 상담교수, 사회사업가 혹은 임상심리 학자(clinical psychologist)와 같은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갖고 일하고 있는 여러가지 전문직에 있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상(client)과의 깊은 만남”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한 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Rogers의 가설은 그의 연구의 다른 많은 학자의 연구에 의해 확증되었다. “제가지 helping-condition에 관한 관계와 성인 피교육자의 자아실현”이라는 Rogers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보면 : 첫째로 교수(teacher)와 학습자(learner)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감지한 학생들은 그들의 자아실현에 있어 가장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 학생들은 이 관계를 신뢰감있고 진실되며 우호적인 학생중심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또 대부분이 학습이란 매우 즐거운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학생 모두가 그런 관계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둘째로 그 둘 사이 즉 교수와 학습자의 관계가 보통이라는 것을 감지한 학생들은 그 관계를 아주 공정하고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무간섭의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셋째로 그 관계가 좋지않은 것으로 생각한 학생들은 이 관계를 권위주의적이고, 딱딱하고, 냉냉하고 교사 중심의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들은 피교육자인 자기들에 대한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흥미는 결여되어 있고 오직 지식 전달에 관한 효율적인 흥미만이 그 관계에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아실현에 있어 최하위의 평점을 보이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견해에서 볼 때 간호 교육자의 책임이다.

느낌(feeling)이나 비판주의적 태도, 공포감 등에 대해 전혀 물리한 태도 또는 개방적인 마음 가짐이나 순수성이 결여된 태도 등 성장발전을 차단시키는 이런 저해 요소를 제거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보게된다.

두번째 응용(second implication); 학생들이 학습경험을 위해 준비하는데 참여하며 주도하게 되면 교사만이 이를 준비하고 주도하는 때보다 월등하게 많은 교육효과를 걸게된다. 실제적인 학습이란 그 과목이나 과제가 자기 개인의 목표를 위해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학생들이 느낄 때 형성된다.

“본래 주어지는 학습 변인(learning variables)이나 부수적인 변인(variables)으로 잘 조화된 학습과정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성공적인 학습을 수행해 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은 모든 학생개체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응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Walf와 Quiring도(1971) 주장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 본래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적 변인(intrinsic variables)이란 소질과 재능의 개발을 위해서 또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 교육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부패적 변인(extrinsic variables)이란 학습의 기회(opportunity for learning)와 학습지도의 질(quality of instruction)을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정의하고 있다.

간호교육자로서의 우리는 이런 다양성 있는 변화과정이 성공적인 교육효과를 걸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여러가지 요건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최대한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흥미와 열의와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불려 이끄는 요소가 되는 까닭이다

## 전 제(Premise) 2

성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교육의 풍부한 재료일뿐만 아니라 정년들 보다 월등 많은 경험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새로운 학습에 관계된 폭넓은 경험적 바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첫번째 응용; 성인들은 이러한 그의 경험적 바탕 위에 자아확립(self-identity)을 구축하는 것이다. 성인이란 현재의 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의 경험이 이용되지 않거나 등한히 취급될 때 그는 한 인격으로서의 소외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Knowles, 1970)

서로 상이한 배경과 임상경험(clinical experince)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풍부한 재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은 discussion group, role-playing, case method, simulation games, interview 등과 같은 것을 통한 학습의 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특이한 경험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와 개입인 것이다.

두번째응용 : 이렇게 계획이 잘 짜여지고 학생들의 경험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교육은 우리들이 그것과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서로 연관짓는게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인 견지에서 볼 때 간호교육 과정은 교과과정이 공식적으로 세정돼 있다. 학생들은 이렇게 규정된 양식을 따라 갔으며 그 과정에 따르는 한 방향만이 주어졌을 뿐이다. 필요한 양의 지식을 학생들이 흡수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양의 방향시달이 필요한가 아니면 각 개인의 경험의 차이에 따라 다를 필요가 있는가 반성해 보아야만 하게 된 것이다.

어떤 간호교육과정들은 이제 개인에 따라 차를 두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individualization)과 학생들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교과를 진행하는 것을 허락하는가 하는 의문점에 관하여 과감히 시인할 때가 왔다. “월등히 나은 학습 제도”라는 토의(discussion)에서 Miller는(1972) Broad Junior College의 간호학 교수진 Nova plan의 혁신적인 개념과 비슷한 연구단위(Study unit)를 각 간호과목에 창안해 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Nova Plan은 학습의 계속적인 과정의 질을 높이는 교육과정의 재료를 제작하는 책임도 포함되고 있다.) Miller의 견해 중 특히 눈에 띄는 사항은 학생 각자가 자기 기능(skill)과 지식(knowledge)의 수준에 따라 시작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학생들은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가장 유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자료(study of material)를 個人化(individualize)하자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기들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보다 큰 책임을 감당하도록 요구된다. 이제 교사는 지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극하는 사람 진단자 diagnostician, 인도자, 자료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Broward curriculum design에 참석했던 첫번 졸업생들이 취직할 후 6달동안에 걸친 그들에 대한 평가에서 보던 졸업간호원으로서 책임을 해 내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성공적으로 감당해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전 제(Premise) 3

성인들은 젊은이를 보다 배운 것을 실생활에 더욱 더 잘 응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학습을 통해 보다 실제적인 결과를 원한다.

첫번째 응용 : 학생들은 학과에 관련된 문제보다 환자의 문제와 관련된 것에서 배운 학습 경험을 보다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Manksch(1972)는 많은 간호학 과정(nursing program)이 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설정되었다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도우는 program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극소수이다. 취사 선택도 할 수 없고 실수 한번 해 볼 수 없도록 강요된 학생들은 교사들에 의해서 선택된 문제와 해결법만에 직면하게 된다.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요리강습사와 같은 형태의 교육과 씨름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이다.

간호행위의 가장 골자가 되는 것은 문제해결 지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기술을 위한 숙련도에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간호학 실습(Nursing practice)

이런 인식의 능력, 정서적인 능력, 그리고 정신운동의 능력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런 기술 능력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과학적인 원리란 간호학 실습(The discipline-nurs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상 간호 문제(clinical nursing problem)의 정의와 분석은 적절한 과학적 지식의 응용과 한가지로 간호 활동(nursing action)에 대한 문제 중심의 접근법(approach)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해결 접근법(Problem-solving approach)은 조직적이고 모순이 없는 사고 방식을 요구한다. 이는 간호 활동(nursing action)과 그 중요성에 유의하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자의 상태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러모로 변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실습자로 하여금 새로운 상태에 대한 가정을 세우고 또 다른 원리를 이용하는 계기를 갖게 한다. 환자의 돌봄(Patient care)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문제 해결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문제 중심적인 자가 질문(self-inquiry)의 자극제가 되는 것이다.

간호교육자로서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항상 해 볼 필요가 있다. 진실로 학생들은 문제해결의 태도(problem solving manner)를 형성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만 그리고 겉으로만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임상(clinical area)에서 학생들은 실제로 경험할 기회가 있는가 등이다.

#### 전 제(Premise) 4

성인들은 청소년과는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험과 성장과정을 갖는다.

첫번째 응용 ;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구성된 원리란 것은 논리적인 발달관에 의한 발달과정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성인들에게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독특한 발달형태가 있으며 그래서 발달제기(development tasks)를 유발하며 학습의 준비 태세와 교육의 최적순간이 있다고 한다. 청장년(young adult)들에게 있어서의 발달제기는 작업을 갖는 순간 시작된다. 따라서 학생의 발달제기는 실습자(practitioner)가 되는 것이다. 이 때를 계기로 해서 직업을 구한다든가 구직에 숙련된다든가 또는 특별히 요구되는 특정한 기술이나 그들에게 요구되는 표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동료 직원들과 어떻게 어울려 일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Kramer group의 자아실현에 관한 연구에서 그들은 전문직 간호원이 간호직을 떠나는 가장 주원인은 환멸감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직업에 대한 불만과 직책에 대한 갈등이 대학원생의 간호학 실습(nursing practice)에서 28.9%로 가장 주된 원인으로 열거되고 있다.

만일 교육 목표가 우리가 실습자 Practitioner로 하여금 기술에 관한 것보다 우리가 실습자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는 type에 관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진다면 간호교육은 그 양상을 매우 달터하게 될 것이라고 Frank(1970)는 믿고 있다. 바꾸어 말해서 교육과정계획(curriculum design)은 건강과 질병에 관한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분야에서 취사 선택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과목들(courses)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습자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전문적 방법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참여와 판단과 도덕적인 가치판단 등에서의 학습지도(instruction)는 변화와 판단과 참여의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한 강의와 실습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교육적인 순간을 통해서 학생은 조직의 구성이나 사회체제에 관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활동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게 된다. 한 간호원이 자기의 성공도가 우수했는가 아니면 평범했는가 또는 하위에 머물렀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문제는 그 자신의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에 대해서 중대한 차이점을 갖게 한다고 Kramer group은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건강간호(health care)에 영향을 주며 필요한 변화 발전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능력(힘)은 그 실습자가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 하는 문제와 대개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이다.

## ◆ 結 論

### 간호 교육자의 임무

요약하던 이제껏 본인은 간호교육에 대한 성인교육학적(androgogical)인 접근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자기 중심적인 학습을 하도록 자극하며 촉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시도했다. 반면에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학생들에게 일러주는 유아 교육학적(pedagogical) 접근법은 학생들이 사회적 요구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가 먹은 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A 학점을 받는다. 유아교육학적인 교수학습 과정(teaching-learning process)에서는 교사는 사실에 관해서만 언급하며 학생들은 사실을 습득하게 되는데 반해서 성인교육학(androgogy)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걸리토 가르칠 수 없으며 단지 다른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뿐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간호교육자로서 우리는 지성적인 교육과정의 진행되어지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질문을 던지며 해답을 주는 것은 좀 더 줄일 필요가 있다. 배움이란 굉장한 모험인 것이다. 학생들은 배우기 위해서 자유로워야 하며 올바른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조사해야 하며 창조적이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간호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성인교육학적 기술(androgogical techniques)은 건강 간호제도(health care system)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롭고 뜻깊은 방법과 길을 모색해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며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해 낼 유능한 실습자(practitioner)를 더 많이 배출해 내야만 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Pearl Resendahl "Self-direction for Learners an androgical approach to nursing education." *Nursing Forum* Vol. 13 No. 2. 1974. p. 136.